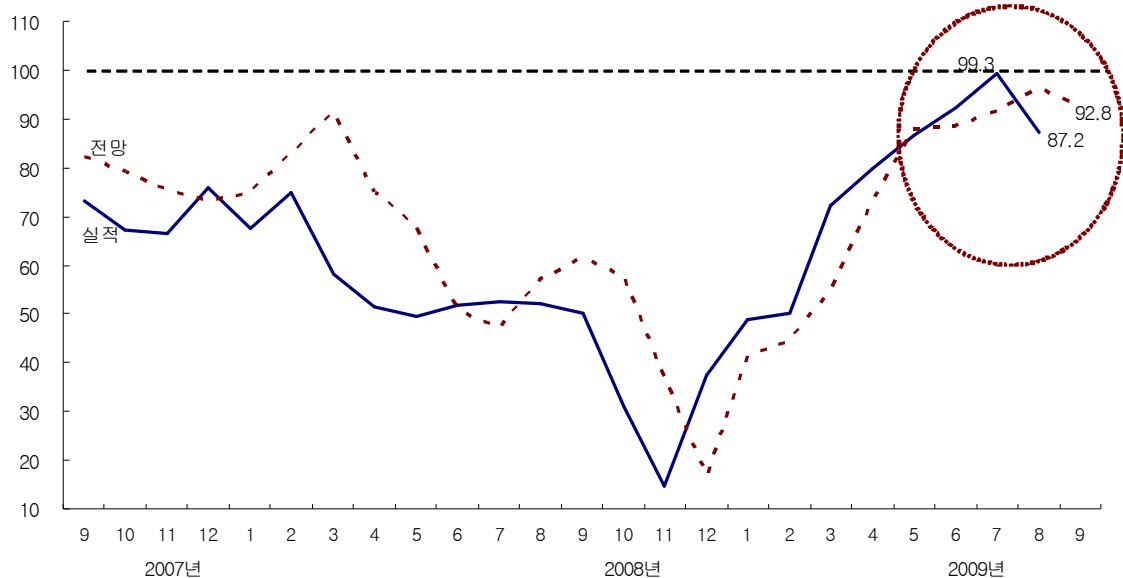


# 2009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월 CBSI 전월비 12.1p 하락, SOC 예산증액 효과 감소 시작

-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SOC 예산증액 효과 감소,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2.1p 하락한 87.2를 기록해 9개월만에 지수 상승세를 마감함.
- －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12.1p 하락한 87.2를 기록함.
- － 이로써 작년 11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영향으로 8개월 연속 상승했던 지수가 9개월만에 상승세를 마감함.
- － 8월 지수 하락은 SOC 예산 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돼 SOC 예산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한 가운데, 민간공사 수주침체, 미분양 주택 적체사태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 전월 조사시 8월 지수 전망치가 7월 실적치(99.3)보다 낮아 8월 지수 하락이 예상되었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하락 폭이 컸는데, 이는 그만큼 SOC

예산 증가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더불어 건설 비수기인 8월의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됨.

- 한편, 9월 전망치가 92.8을 기록해 건설 비수기가 끝남에 따라 8월 실적치보다는 소폭(5.6p)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전고점인 7월 실적치(99.3)보다는 6.5p 낮을 것으로 전망됨.
- SOC 예산 증액의 효과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고, 하반기에 민간공사 수주 침체 및 미분양 주택 적체 사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당분간 지수가 7월의 전고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지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중소기업체는 지난 1월 수준까지 지수가 급락해 체감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다시 재현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31.1	14.6	37.3	48.9	50.0	72.3	80.0	86.6	92.2	99.3	87.2	96.2	92.8
규모 별	대형	44.4	7.7	46.2	53.8	58.3	84.6	83.3	100.0	92.3	114.3	107.1	107.1
	중견	17.9	17.2	35.7	42.9	40.6	66.7	91.9	78.1	97.2	105.9	100.0	105.9
	중소	30.6	19.7	28.8	50.0	50.8	64.4	62.5	80.5	86.4	74.2	49.3	71.6
지역 별	서울	33.6	9.8	41.0	49.2	50.9	78.0	89.7	97.5	93.9	114.6	102.7	109.0
	지방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6.5	83.6	69.8	64.2	70.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7.2p 하락한 107.1을 기록함. 이로써 지난 7월 114.3을 기록해 8년 7개월만에 지수가 110을 넘어선 지 한달 만에 다시 지수가 110선 아래로 하락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전월대비 5.9p 하락한 100.0을 기록함으로써 지난 7월

105.9를 기록해 8년 11개월만에 지수가 기준선인 100선을 넘어섰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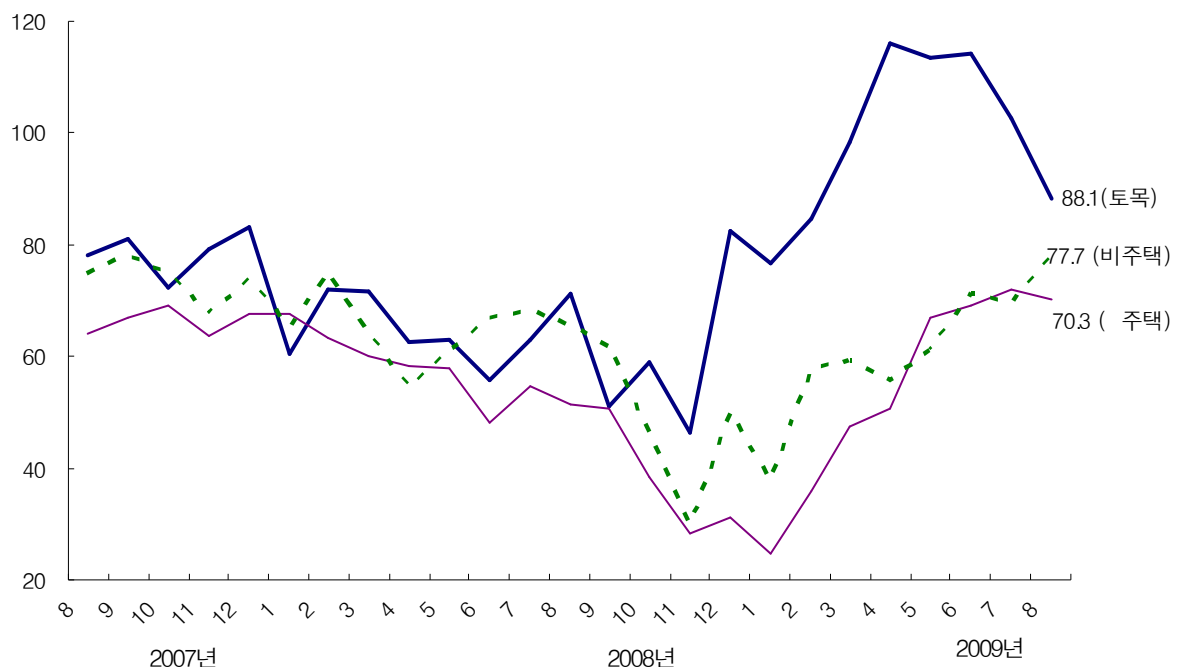
- 대형, 중견업체와 달리 이미 7월부터 지수 하락세가 시작된 중소기업 지수는 8월에는 전월비 24.9p나 하락한 49.3을 기록함으로써 지수 상승 초기인 지난 1월(50.0)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비록 전월대비 11.9p 감소했으나 지수 자체는 100선 이상인 102.7로 경기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업체는 지수가 5.6p 감소한 64.2로 여전히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의 지수는 102.7로 전월대비 11.9p 감소했으나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넘어 경기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5.6p 감소한 64.2로 지난 7월보다 건설경기가 악화되었으며 60선에 이르러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9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8월보다 5.6p 증가한 92.8로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는 8월과 같은 107.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견과 중소기업체는 각각 8월보다 3.6p, 14.3p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서울업체는 지수가 2.8p 증가한 105.5를 기록하여 8월의 호경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9.7p 증가한 7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8월보단 침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비주택물량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토목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전월대비 2.1p 감소한 90.5 기록

- 공사물량지수는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8.3p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온 토목 물량지수가 90선 이하로 감소함에 따라 전월 대비 2.1p 감소한 90.5를 기록함.

- 토목 물량지수는 그동안 지수 상승을 주도한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가 둔화됨에 따라 지수가 전월 대비 14.4p 감소한 88.1을 기록 6개월 만에 지수가 다시 80선으로 떨어짐.
- 주택 물량지수는 중견업체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전월대비 1.5p 감소한 70.3을 기록,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비주택 물량지수는 대형업체의 호조로 전월대비 8.3p 증가한 77.7을 기록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7.2p 증가, 중견업체는 5.1p 감소, 중소업체는 9.5p 감소하여 중소업체의 전월 대비 물량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지수 자체도 대·중·소 업체별로 각각 114.3, 103.7, 47.6을 기록하여 중소 업체의 물량침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경우 지난 7월보다 7.2p 상승한 114.3을 기록하여 큰 호조를 보였는데,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21.4p 급증한 107.1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대형업체의 토목물량은 전월보다 21.4p 감소했으나 기준선 보다 높은 114.3로 여전히 호조를 보였으며, 주택물량은 전월과 동일한 85.7을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 지수가 전월 대비 5.1p 감소한 103.7을 기록하였는데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증가(5.8p)하였으나 토목과 주택물량이 각각 전월보다 6.3p, 9.7p 감소함(각각 100.0, 77.8 기록).
- 중소기업의 물량지수는 47.6으로 전월보다 9.5p 감소하였는데 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5.9p 상승하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15.5p, 4.3p 감소함.

####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0.5	114.3	103.7	47.6	107.7	64.7
	전망	94.8	114.3	107.7	57.1	113.5	66.6
토목	실적	88.1	114.3	100.0	43.8	107.0	60.0
	전망	96.2	114.3	112.0	56.9	112.7	71.1
주택	실적	70.3	85.7	77.8	43.6	81.0	54.2
	전망	81.5	107.1	74.1	60.0	95.2	60.4
비주택	실적	77.7	107.1	80.8	39.7	97.3	47.6
	전망	76.1	92.9	76.9	55.6	86.8	59.6

주 : 실적은 2009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9월 예측지수임.

-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지수가 각각 0.7p, 0.2p 증가하여 각각 107.7과 64.7을 기록하였는데 여전히 지방업체의 침체가 심각함.
- 서울업체의 경우 7월보다 0.7p 증가한 107.7로 호조를 지속함. 주택 물량지수가 6.3p 감소한 81.0로 부진하였으나, 토목 물량지수가 107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비주택 물량지수도 전월보다 13.3p 증가한 97.3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지방업체의 경우 지난 7월과 비슷한(0.2p 증가) 64.7을 기록하여 침체가 지속되었는데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12.7p, 7.1p 증가하

였으나,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3.9p 감소함.

- 2009년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8월 실적치 보다 3.5p 증가한 94.8로 전망되었는데 토목과 주택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8월보다 8.1p, 11.2p 증가한 96.2와 81.5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8월보다 1.6p 감소한 76.1로 전망함.

**인력/자재수급 상황 아직까지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관련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아직 양호한 가운데, 자금 상황이 예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자재비 상황이 작년 상반기 이후 인상된 자재비와 최근 수급상황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전월비 20.1p, 15.5p 하락한 101.4, 104.5를 기록함. 지수가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에 수급상황에 큰 문제는 없으나, 상반기 증가한 공공 수주물량이 착공됨에 따라 인력 및 자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은 서서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조금 못미친 95.5를 기록해 상황이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재비 지수가 전월비 13.6p 하락한 75.1을 기록해 인건비에 비해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자재수급 상황 변화와 더불어 작년 상반기 이후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공공부문의 선급금 지급 확대, 기성 지급 등의 영향으로 107.9를 기록해 3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었으며, 자금조달 지수가 32개월만에 기준선을 넘어선 전월에 비해서 9.8p 하락한 98.5를 기록했음.

그러나, 지난 3월 이전까지 1년 이상 80선 아래에 머문 것과 비교해서는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급	실적	107.9	121.4	121.4	76.5	125.6	81.5
		전망	101.9	114.3	110.7	77.3	115.2	83.5
	자금조달	실적	98.5	114.3	107.1	70.1	110.3	81.0
		전망	98.5	114.3	103.6	74.2	109.0	82.9
인력	수급	실적	101.4	107.1	107.1	88.2	109.1	90.1
		전망	103.2	107.1	107.1	94.0	109.9	93.3
	인건비	실적	95.5	100.0	103.6	80.9	100.0	88.7
		전망	93.3	100.0	96.3	82.1	97.9	86.6
자재	수급	실적	104.5	114.3	103.6	94.0	111.3	94.4
		전망	95.9	100.0	100.0	86.4	100.8	88.6
	비용	실적	75.1	85.7	75.0	62.7	82.5	64.0
		전망	71.0	78.6	71.4	61.5	74.7	65.4

주 : 실적은 2009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9월 예측지수임.

끝.